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10.19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코어위브 신용불안, AI 투자 위축 우려는 과도

견조한 GPU 수요와 빅테크의 투자 여력에 주목, 실적 발표가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

- 코어위브 신용위험이 확대됐지만, GPU 수요 감소나 AI 인프라 투자 축소 확인되지 않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엔비디아의 높은 현금창출 능력과 AI 인프라 금융 확대, 대형 플랫폼 기업의 투자 여력이 금융불안의 확산을 완화할 전망
- 10월 하순 빅테크 실적에서 AI 수요와 설비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될 경우 투자심리 회복 예상. 엔비디아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 코어위브의 신용위험이 커져 투자자들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AI 인프라 투자 전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최근 코어위브의 회사채 수익률이 15~16%까지 상승했다. 5년물 CDS 스프레드가 1,100bp를 넘어서면서 AI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확산됐다.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은 네오클라우드의 자금조달 문제가 GPU 구매와 데이터센터 건설 및 확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증시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용불안은 개별 사업자의 금융비용 상승에 집중돼 있으며, AI 투자 전체 중단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 코어위브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변수는 2027년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의 실행 여부다. Factset 컨센서스 기준 2027년 매출은 266억 달러, 영업현금흐름은 245억 달러다.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479억 달러인데, 영업현금흐름을 전부 투입해도 234억 달러가 부족하다. 기존 차입금의 예정 원금 상환액 62억 달러까지 합하면 약 296억 달러가 필요하다. 코어위브는 2026년 6월 말 기준 현금 55억 달러와 미사용 약정대출 한도 100억 달러 등 약 156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고객이 미리 지급하는 컴퓨팅 이용료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영업현금흐름 36.6억 달러 중 13.7억 달러가 이연매출 증가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효과다.

GPU 임대가격 상승: AI 컴퓨팅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

- GPU 임대가격 상승은 AI 컴퓨팅 수요와 기존 인프라의 현금창출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첫 번째 근거다. 코어위브는 지난 7월 GPU 서비스 가격을 약 25% 인상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 외에도 기존 Ampere와 Hopper 세대의 GPU도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출시된 A100을 2029년까지 재계약한 사례는 신형 GPU 출시 이후에도 기존 장비에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가격 인상에는 부품 비용 상승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구형 GPU의 높은 가동률과 재계약은 실제 컴퓨팅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존 GPU의 활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금 회수와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금융시장의 신용불안과 달리 GPU 임대시장에서는 아직 수요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어위브의 투자 축소가 AI 인프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 코어위브의 금융문제를 전체 AI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코어위브의 2026년 설비투자 컨센서스는 364억 달러다. 투자 규모가 20% 축소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약 73억 달러의 투자가 감소하거나 지연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의 2026년 합산 설비투자 계획 약 7,450억 달러의 1% 수준이다. 2027년 코어위브의 예상 설비투자 479억 달러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96억 달러가 감소한다.
- 코어위브의 GPU 구매가 줄어들면 엔비디아의 매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수요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해 투자를 확대한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코어위브 한 기업의 투자 축소보다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가 다른 인프라 사업자로 확산되는지가 AI 산업 전체의 투자 지속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금융: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대안

- 네오클라우드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는 데 GPU 공급자인 엔비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코어위브 등 주요 네오클라우드 기업은 엔비디아 설치기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네오클라우드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엔비디아 플랫폼 및 생태계 확산에 차질이 생긴다. 엔비디아는 2025년 출시한 블랙웰부터 랙 단위 시스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를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다. GPU뿐만 아니라 전력 및 그 외 인프라 전반을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포함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 브로드컴 CEO 혹 탄은 지난 10월 12일 AI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제약이 반도체와 메모리 공급보다 자금 확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이보다 앞선 8월 10일 아폴로, 블랙록 등 6개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5,000억 달러 이상의 외부 자본을 AI 인프라에 유치하는 금융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다. GPU와 장기 고객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산으로 활용해 기관투자자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젠슨 황이 AI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병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본 공급이 확대된다면 GPU 구매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신용불안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직접 지원: 코어위브 추가 구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엔비디아가 네오클라우드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코어위브도 마찬가지다. 젠슨 황은 지난 10월 15일 코어위브의 재무건전성이 매일 개선되고 있으며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금융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1월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고, 앞서 2025년 9월에는 미판매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는 초기 계약가치 63억 달러의 약정도 체결했다. 기존 지원이 코어위브의 투자와 매출을 뒷받침하지만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엔비디아의 현금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지원에 따른 재무 부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2027 회계연도 상반기 744억 달러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했으며, 7월 말 기준 현금과 시장성 채무증권 56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투자는 코어위브의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지만, 컴퓨팅 구매약정에 따른 부담은 실제 미판매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견조한 AI 컴퓨팅 수요는 미판매 용량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기존 지원 규모와 엔비디아의 재무 여력을 고려하면 코어위브의 신용불안이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재무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다.

엔비디아의 간접 금융지원: 대규모 지급보증에도 단기 재무부담은 제한적

- 엔비디아의 간접 금융지원은 고객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신용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최대 보증 한도 전체가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공시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관련 최대 조건부 지급보증 노출액은 1,085억 달러로, 이 중 1,050억 달러는 SB Energy가 OpenAI를 위해 개발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증이다.
- 해당 보증은 엔비디아의 2029 회계연도부터 데이터센터 가동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효된다. 고객이 임대료를 지급하면 보증잔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보증 범위도 데이터센터 전체 사업비가 아니다.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와 전력비 일부로 제한되며, 고객이 일정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이 종료될 수 있다. 고객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실제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의 최대 보증 한도를 확정 채무나 예상 손실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순환금융 위험은 최종 수요가 결정

-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은 외부 자본을 활용해 직접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지원이 GPU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순환금융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네오클라우드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면 외부 금융조달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별 현금흐름과 담보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투자한다면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추가 보증이나 GPU 잔존가치 보장을 제공하면 위험 일부가 다시 엔비디아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젠슨 황은 금융 플랫폼과 관련해 잠재적인 거래의 최대 25%, 금액으로는 1,250억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도 일부 프로젝트에 제한적인 잔존가치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공시했다. 순환금융의 핵심 위험은 금융거래 자체보다 최종 고객의 컴퓨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의 금융지원에 의존해 GPU 구매와 매출이 유지되는 경우다. 현재 GPU 임대가격 상승과 구형 GPU 재계약은 실제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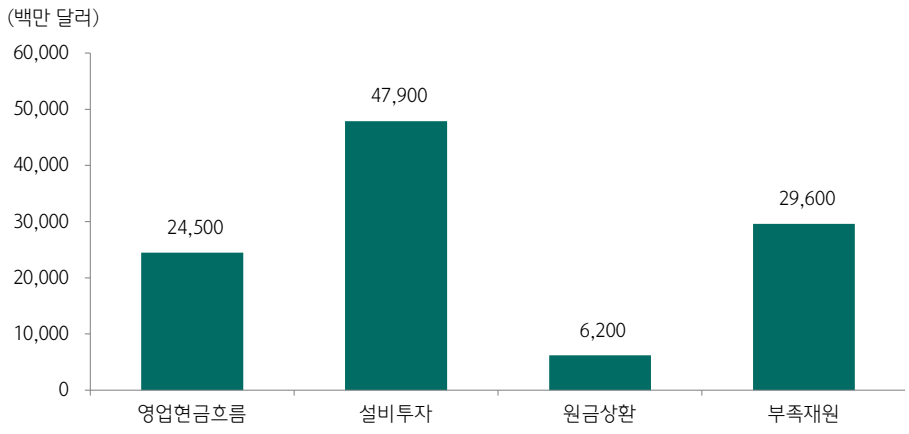
AI 금융 부실,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 네오클라우드의 신용불안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본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2026년 9월 초까지 글로벌 AI 관련 부채 신규 발행액은 약 4,500억 달러로 2025년 연간 발행액의 두 배를 넘었으며, 2026~2028년 데이터센터 투자 중 사모신용을 통한 조달 규모는 약 7,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 네오클라우드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대출손실과 신규 자금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하려면 은행의 자본 여력이 훼손되고 다른 산업으로도 신용경색이 확산돼야 한다. 미국 연준의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32개 대형 은행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7,08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는 가상 상황에서도 모두 최소 자본요건을 충족했다.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체 현금창출 능력은 금융불안이 AI 투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사모신용과 보험사의 위험노출 규모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의 신용불안만으로 2008년과 같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예단하는 것은 과한 우려다.

AI 인프라 금융불안, 대형 플랫폼과 엔비디아 매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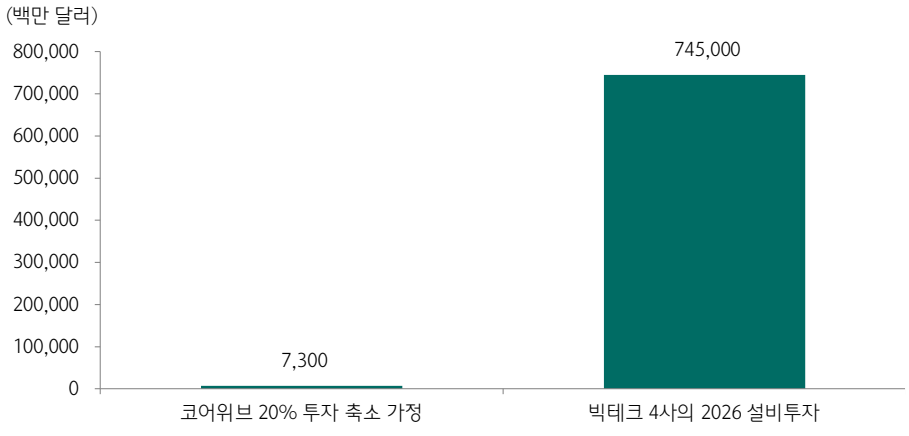
- 코어위브의 신용불안에도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AI 관련주의 주가 하락은 실제 GPU 수요 감소나 설비투자 축소보다 네오클라우드의 신용위험이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 약화된 투자심리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AI 투자 사이클을 주도해 온 기업들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과 설비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된다면 금융불안에 따른 시장의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의 실적 전망보다 금융위험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먼저 반영된 만큼 대형 플랫폼 기업과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도표1. 코어위브의 2027년 자금조달 부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코어위브 투자 축소가 전체 AI 투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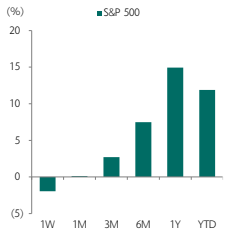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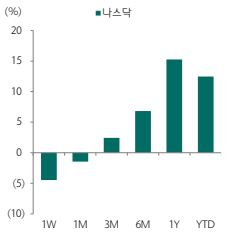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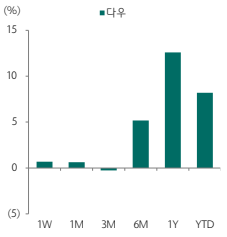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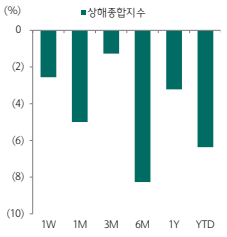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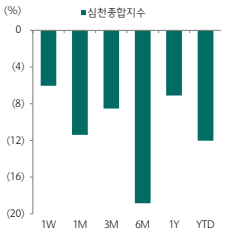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3. 엔비디아의 금융지원 구조 및 위험 비교

구분	주요 지원 규모	엔비디아의 위험
직접 지분투자	코어위브 20억 달러	지분가치 하락
컴퓨팅 구매약정	초기 계약가치 63억 달러	미판매 용량 구매 부담
간접 지급보증	최대 1,085억 달러	고객 계약 불이행 시 보증 부담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외부 자본 유치 목표 5,000억 달러 이상	기관투자자가 주로 자금 공급
플랫폼 추가 지원 가능성	최대 1,250억 달러 언급	지원이 실제 약정될 경우 위험 부담

자료: NVIDIA, SEC,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659.4	26,140.0	52,002.4	3,716.3	2,226.5
1W (%)	-1.9	-4.5	0.7	-2.6	-6.0
					

주) 10월 16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10월 12일~10월 16일) 리뷰: AI 금융불안에 기술주 급락, 방어주로 자금 이동

- 지난주 미국증시는 다우지수(+0.7%)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4.5%, S&P 500은 1.9% 하락했지만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5% 상승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은 3% 하락했다. 성장주 ETF(VUG)는 4.4% 하락한 반면 가치주 ETF(VTV)는 1.3% 상승했다. M7 ETF(MAGS)는 3.4%, M7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XMAG)는 1.7% 하락했다. 변동성지수(VIX)는 34.7% 급등했다. 기술주에 집중됐던 투자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 AI 인프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ETF(SOXX)는 지난주 11.8% 급락했다. 코어위브의 회사채 수익률은 15~16%까지 상승했고, 5년물 CDS 스프레드는 1,100bp를 넘어섰다. 코어위브 등 네오클라우드 기업은 GPU와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자금을 선투자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높은 차입금과 금융비용에 취약하다. 금융시장은 코어위브의 신용위험이 다른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GPU 수요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달 문제가 AI 인프라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반도체와 서버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
-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지만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0월 9일 5.24%에서 16일 5.09%로 약 15bp 하락했다. 16일 미 재무부는 11월 분기 리펀딩 발표를 앞두고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향후 국채 입찰 규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장기물 발행 축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과 국채 공급 축소 기대 약화로 장중 금리가 반등하기도 했다. 주간 기준 금리 하락에도 기술주가 급락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AI 투자에 대한 금융위험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 앤트로픽의 성장률 둔화와 IPO 기업가치 하향 가능성도 AI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이었다.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은 168억 달러로 2분기 115억 달러 대비 약 46% 증가했지만, 당사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178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1분기 47.3억 달러에서 2분기 115억 달러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7월 말 연환산 매출 6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연말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9%의 성장이 필요하다. 앤트로픽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기업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가파른 성장이 요구된다.
- 앤트로픽의 IPO 기업가치가 기존 목표인 2조 달러에서 1조 5,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사는 지난 10월 4일 위클리 자료에서 앤트로픽이 2조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장기간 높은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전환을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평균 31%의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며, 해당 시나리오에서 산출한 기업가치는 1.4조 달러다. 이번 IPO 가치 하향 가능성은 AI 기업의 빠른 매출 성장만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 지난주 상승 상위섹터는 필수소비재(+5%), 에너지(+5%), 헬스케어(+3.4%) 등이었다. 정보기술(-6.4%), 경기소비재(-1.9%), 커뮤니케이션(-1.6%), 산업재(-0.9%) 등은 하락했다. AI 기업들의 금융불안이 확대되면서 기술주에 집중됐던 투자자금이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 등 방어적인 업종으로 이동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WTI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다. 주간 기준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정보기술 섹터가 가장 부진했다는 점은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이번 주(10월 19일~10월 23일) 프리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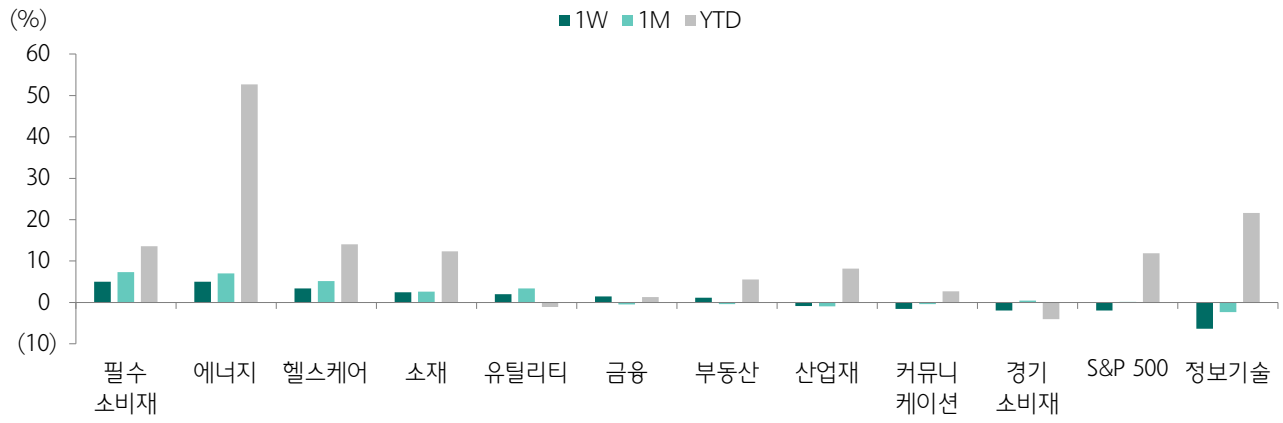
- 이번 주 미국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간다. 시장참여자들은 기업들의 이익성장과 향후 전망뿐 아니라 AI 수요와 설비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 20일부터 미국 주요 방산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미국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전쟁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잔고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부진했다(10월 16일 기준 연초 대비 S&P 500 +14.2% vs. GE +1.3%, RTX +1.9%, LMT +10.1%, NOC -12.4%, LHX -18.1%, GD +0.1%). FY 2027 국방예산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제한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실적에서는 수주잔고가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와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이익 및 현금흐름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경영진이 향후 생산량과 납기,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면 방산기업들의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 21일에는 메타의 실적이 발표된다. 시장참여자들은 에이전틱 AI 뮤즈의 초기 성과와 향후 수익화 전략, 설비투자 계획에 주목할 전망이다. 최근 메타의 주가는 뮤즈가 저가전략을 통해 에이전틱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아마존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뮤즈의 유통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번 실적에서는 뮤즈의 이용자 확대와 실제 사용량, 향후 수익화 계획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이 중요하다. AI 서비스의 확산이 컴퓨팅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메타가 공격적인 설비투자 기조를 유지한다면 AI 인프라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 21일에는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된다. 로보택시 상용화 진전과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확보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3분기 차량 인도량은 48.7만 대로 시장 예상치를 약 5% 상회했으며, 자동차 부문 매출총이익률은 16.7% 수준이 예상된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누적 무감독 주행거리가 100만 마일을 돌파하는 등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적에서는 실제 유료 운행거리와 차량당 이용률을 통해 로보택시 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설비투자가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확대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수익 창출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이 주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 21일에는 램리서치의 실적이 발표된다. 당사는 지난 7월 3일 발간한 자료에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 장비의 투자 사이클을 연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TSMC 등 파운드리 기업들의 증설이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 장비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객사 설비투자 확대가 실제 장비 주문과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비 공급능력과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견조한 수요와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이익성장 및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최근 급락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22일에는 웨스턴디지털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최근 웨스턴디지털과 시게이트 등 스토리지 기업들은 도시바의 생산능력 확대 소식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당사는 견조한 데이터센터용 HDD 수요를 고려하면 도시바의 증설이 미국 스토리지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생산능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품 기술력과 고객사 공급계약 등도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실적에서는 데이터센터용 HDD의 수요와 판매가격, 고객사 공급계약 및 향후 매출총이익률 전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견조한 수요와 수익성이 유지된다면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로는 20일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24,800건) / 9월 주택 착공(예상치 1,310,000건, 이전치 1,403,000건) / 9월 주택 판매 MoM(예상치 +0.3%, 이전치 +0.3%), 21일 EIA 주간 원유 재고, 22일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197,000건, 이전치 199,000건) / 9월 경기선행지수(예상치 Flat, 이전치 -0.1%), 23일 10월 캔자스시티 제조업지수(예상치 7, 이전치 14) / 10월 S&P 글로벌 종합 PMI(예상치 57.8, 이전치 58.4) / 제조업 PMI(예상치 55, 이전치 55.9) / 서비스업 PMI(예상치 57.8, 이전치 58.8) / 10월 미시간대 심리지수(예상치 46.3, 이전치 46.3) 등이 있다.
-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없다. 17일부터 29일까지 10월 FOMC(27~29일)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20일 GE Aerospace(GE) / Netflix(NFLX) / Rtx Corp(RTX) / Intuitive Surgical(ISRG) / 3M(MMM) / General Motors(GM) / Northrop Grumman(NOC) / United Airlines Holdings(UAL) / Halliburton(HAL) / Omnicom(OMC), 21일 Meta Platforms(META) / Tesla(TSLA) / Lam Research(LRCX) / Philip Morris(PM) / Texas Instruments(TXN) / Thermo Fisher Scientific(TMO) / IBM(IBM) / Abbott(ABT) / NextEra Energy(NEE) / AT&T(T) / Danaher(DHR) / CME Group A(CME) / United Rentals(URI) / Teledyne Technologies(TDY) / Knight Swift(KNX), 22일 P&G(PG) / Gilead(GILD) / Western Digital(WDC) / Blackstone(BX) / Lockheed Martin(LMT) / Spotify Tech(SPOT)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10/16)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659.4	-1.1	-1.9	0.1	2.7	7.5	14.9	11.9
나스닥	미국	26,140.0	-2.1	-4.5	-1.4	2.4	6.8	15.3	12.5
다우	미국	52,002.4	-0.3	0.7	0.6	-0.3	5.2	12.6	8.2
STOXX600	유럽	644.7	0.7	2.1	1.5	0.5	2.9	13.9	8.9
KOSPI	한국	5,668.1	2.0	-14.5	-17.8	-16.9	-8.5	51.2	34.5
KOSDAQ	한국	794.8	4.5	-10.9	-3.9	0.4	-32.1	-7.5	-14.1
상해종합지수	중국	3,716.3	0.2	-2.6	-5.0	-1.3	-8.3	-3.2	-6.4
심천종합지수	중국	2,226.5	0.0	-6.0	-11.4	-8.5	-18.9	-7.1	-12.0
항테크지수	홍콩	24,186.8	0.5	-0.1	-2.3	-3.8	-8.2	-6.5	-5.6
TOPIX	일본	4,066.0	1.7	-0.6	-0.6	3.7	8.1	28.2	19.3
니케이 225	일본	65,324.3	1.4	-5.4	0.5	1.8	11.7	37.3	29.8
니프티 50	인도	23,146.2	0.6	2.8	-0.9	-4.9	-5.0	-10.0	-11.4
Vietnam	베트남	1,705.9	0.4	-1.7	-6.0	-4.6	-6.1	-1.5	-4.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10.1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필수소비재: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방어주 선호 심리 강화되며 매수세 유입
- 에너지: 중동 지정학적 위기 지속으로 WTI가 100달러를 재돌파하며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정보기술: AI 인프라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관련주 중심으로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10/12	**앤트로픽, 아이렌과 다년 클라우드 계약** • 앤트로픽이 네오클라우드 기업 아이렌과 다년간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 AWS, 구글 등 10곳 이상의 클라우드 파트너와 총 15GW·5,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임차 계약을 보유하며 협력사들에 가동 가속을 요구 중. 앤트로픽의 AI 컴퓨팅 용량은 올해 5GW에서 내년 9.5GW, 2028년 15GW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루이지애나 245MW 데이터센터를 한 달만 앞당겨 가동해도 13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서버 조기 가동이 수익에 직결
10/13	**메타, 최첨단 AI 모델 '뮤즈 원더' 공개** • 메타가 '뮤즈 원더'와 '뮤즈 원더 풀'을 출시하며 AI 모델 선두권 진입을 선언. 아티피셜어낼리시스 기준 뮤즈 원더는 AAII 52점으로 공동 7위, 뮤즈 원더 풀은 56점으로 클로드 오퍼스 5.5(58점)에 이어 공동 2위. 대화 이력·선호를 기억하는 '액티브 메모리'와 오류 발생 시 스스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는 '액티브 포커스' 기능을 탑재해 에이전트 구동에 최적화. 발표 당일 메타 주가는 3.38% 상승
10/13	**MS, 자체 AI 칩 '마이아 300' 공개** • MS가 OCP 글로벌 서밋 2026에서 최신 자체 AI 추론 칩 '애저 마이아 300'을 공개. 주요 GPU 기반 시스템 대비 MW당 토큰 처리량이 40% 높으며 96개 칩 구성 서버 랙은 전작 마이아 200 대비 처리량 7배 향상. 내년부터 수 GW 규모 인프라에 투입해 자사 AI 추론 시스템의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 아마존·구글·메타 등도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 중이나, 작업 유형별 칩 혼용 필요성으로 인해 엔비디아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10/13	**브로드컴·인텔 CEO "AI 최대 제약은 반도체·전력 아닌 자본"** • 브로드컴 혹 탄 CEO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AI 인프라의 최대 제약 요인은 자본일 수 있다"고 밝힘. 메모리 부족은 1년 내, 웨이퍼 부족은 2028~2029년, 전력 공급도 신규 발전 가동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자금 조달 문제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 인텔 립부 탄 CEO도 "자본비용 상승과 투자자들의 ROI 요구가 시급한 과제"라며 동조. 다만 두 CEO 모두 단기 AI 컴퓨팅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며 이 불균형이 2029~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장기 성장 유지는 기업들이 AI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10/15	**앤트로픽 3분기 매출 168억 달러(QoQ +50%)…IPO 기업가치 2조→1.5조 달러로 하향 검토** • 앤트로픽이 투자자 설명회에서 3분기 매출 168억 달러(QoQ +50%), 조정 영업이익률 11%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개. 컴퓨팅 파워 1달러 투입 시 1.70달러 매출을 거두는 구조. 다만 1~2분기의 두 배 이상 성장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당초 기대치 2조 달러에서 약 1조5,000억 달러로 낮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뉴욕시 감사관도 AI 안전·지배구조 문제 해소 전까지 IPO 연기를 촉구
10/15	**미국 9월 PPI MoM +1.3%…2022년 3월 이후 최대, 예상치 대폭 상회** • 미 노동부, 9월 PPI가 MoM +1.3%, YoY +6.3%로 시장 예상치(MoM +0.6%, YoY +5.5%)를 크게 상회하며 각각 2022년 3월,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휘발유 가격이 20.3% 폭등하며 에너지 물가지수가 10.8% 급등해 전체 상승을 주도. 근원 PPI도 MoM +0.7%로 예상치(+0.3%)의 두 배를 웃돌며 물가 압력이 에너지 외 부문으로도 확산. 전날 발표된 9월 CPI(MoM +0.6%, YoY +3.7%)도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연준 베이지북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용어가 역대 최다 등장. 10월 27~28일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
10/15	**코어위브 회사채 금리 15% 돌파…5년 내 채무불이행 확률 50% 반영** • 코어위브의 2032년 만기 회사채 가격이 액면가의 80% 밑으로 떨어지며 유통금리가 15%를 돌파. 신용등급 B+(정크)임에도 CCC 이하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CDS 시장에는 5년 내 채무불이행 확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반영. 주가도 한때 17% 급락.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는 데이터센터 투자수익률이 최대 4~5%에 불과한데 9% 이상 금리로 차입하는 구조는 규모를 키울수록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 CEO는 "계약 잔고가 채무 상환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시장의 비합리적 반응이라고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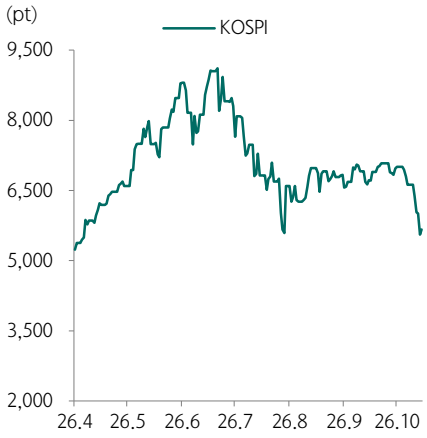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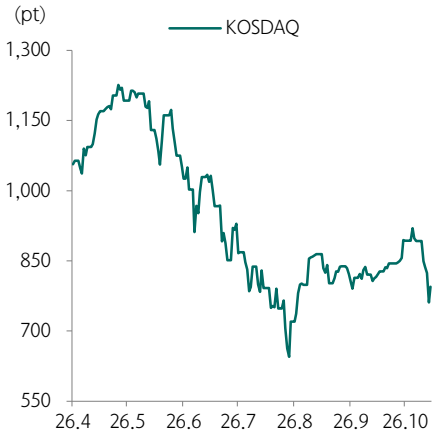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10/1	2
			NKE ACN AYI	
5	6	7	8	9
	STZ	APLD LEVI	PEP PGR	DAL
12	13	14	15	16
	JPM JNJ UNH GS WFG C DPZ	ASML BAC MS BLK	TSM SCHW BK PNC	TRV TFC
19	20	21	22	23
BHP KARO	GE NFLX RTX ISRG MMM GM NOC MSCI UAL HAL OMC HAS	META TSLA PM TXN TMO IBM NEE T DHR KMI URI TDY	PG GILD UNP WDC BX LMT SPOT	XOM AXP
26	27	28	29	30
VZ WELL CDNS NUE	GOOGL MSFT KO BA GLW FCX UPS PYPL	GEV KLAC APH STX NOW FTNT EQIX GD AEP FDX	AMZN LLY INTC MRK SNDK LIN BMY PH SBUX MAT MRNA LYV	ABBV CVX REGN CL D SRE EXC C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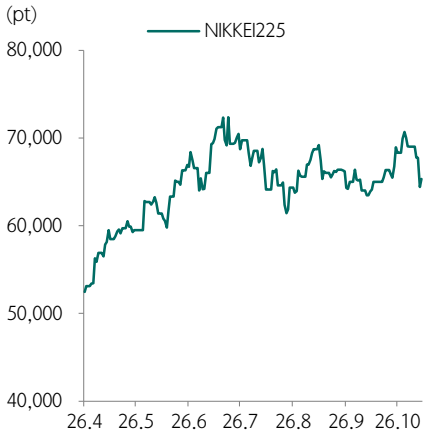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10/19(월)	• 10월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
10/20(화)	•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 • 9월 주택착공건수 (이전 1.275M) • 9월 건축승인건수[P] (이전 1.403M) • 3분기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now[P]
10/22(목)	• 9월 미국 선행지수 (MoM 이전 -0.1%)
10/23(금)	• 10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 (이전 58.8) •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 (이전 55.9) • 10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7%, 예상 4.7%) • 10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심리지수 (이전 46.3/48.1, 예상 47.3/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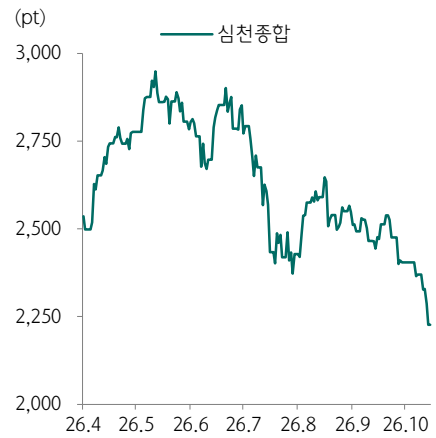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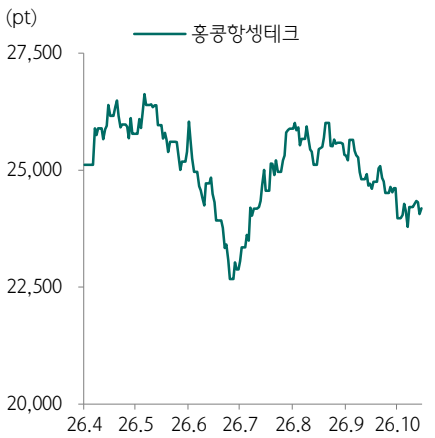

(pt)
KOSPI
9,500
8,000
6,500
5,000
3,500
2,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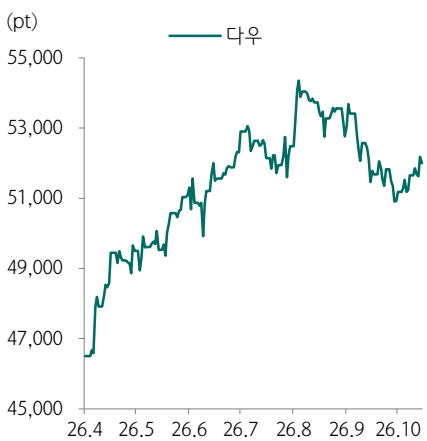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55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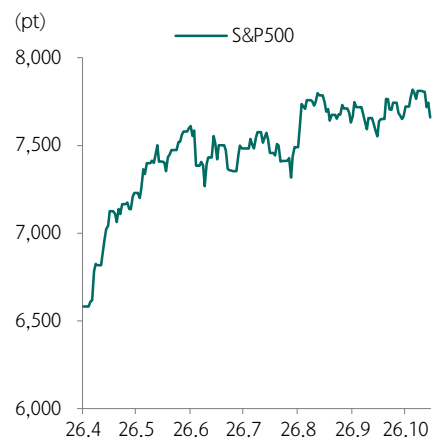

(pt)
NIKKEI225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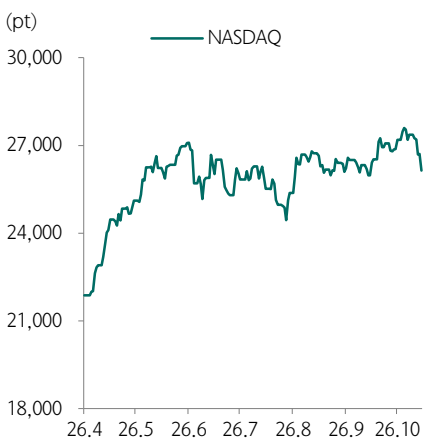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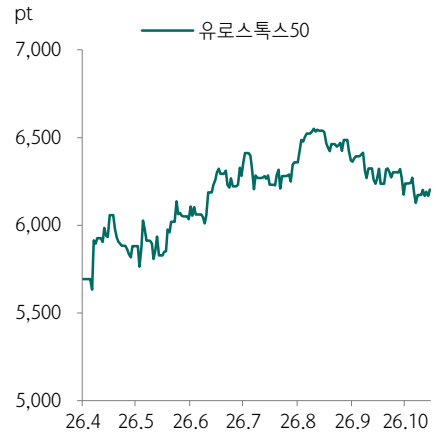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27,500
25,000
22,500
20,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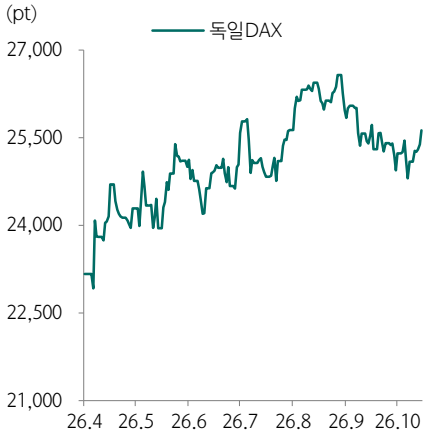

(pt)
다우
55,000
53,000
51,000
49,000
47,000
45,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pt)
S&P500
8,000
7,500
7,000
6,500
6,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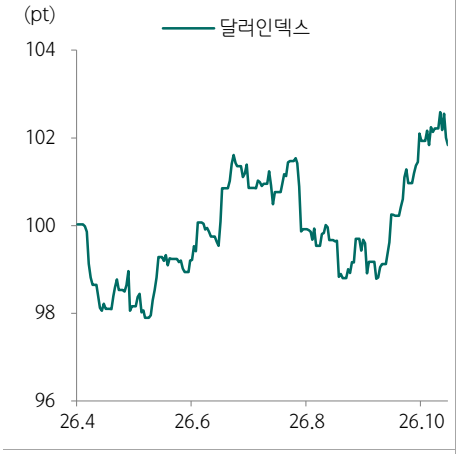

(pt)
NASDAQ
30,000
27,000
24,000
21,000
18,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VIX
36
27
18
9
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pt
유로스톡스50
7,000
6,500
6,000
5,500
5,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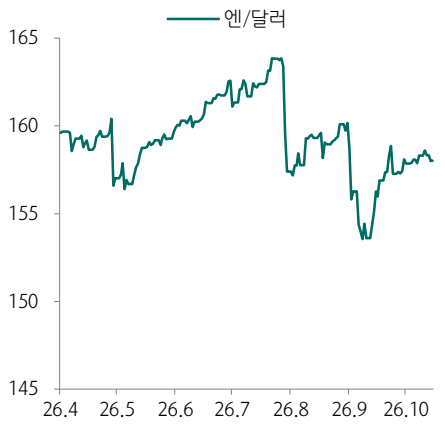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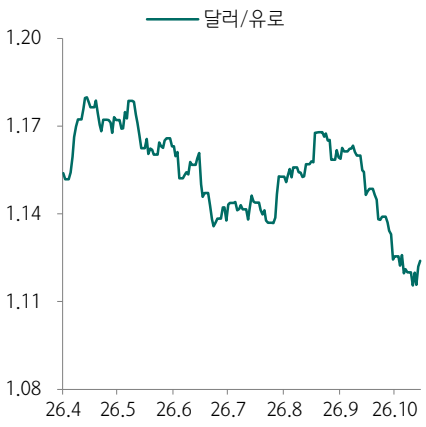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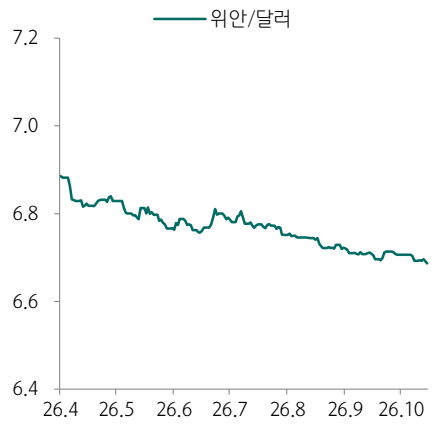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4
102
100
98
96
26.4
26.6
26.8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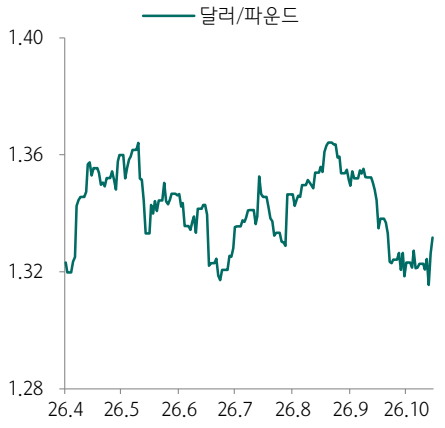
원/달러
1,610
1,540
1,470
1,400
1,330
1,260
1,19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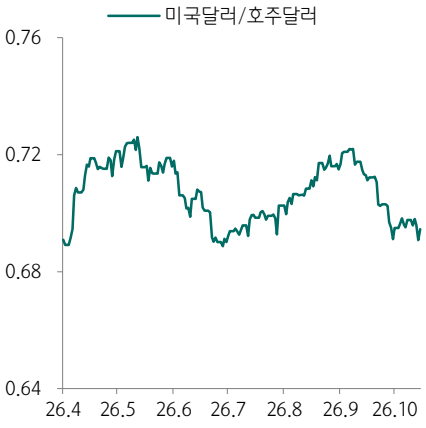
원/엔
10.0
9.6
9.2
8.8
8.4
8.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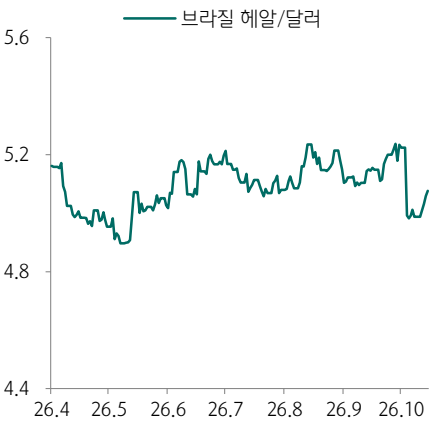

엔/달러
165
160
155
150
14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유로
1.20
1.17
1.14
1.11
1.08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위안/달러
7.2
7.0
6.8
6.6
6.4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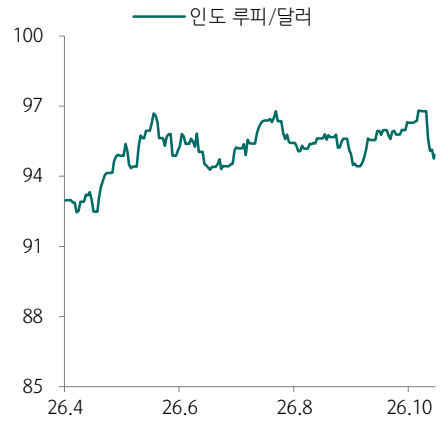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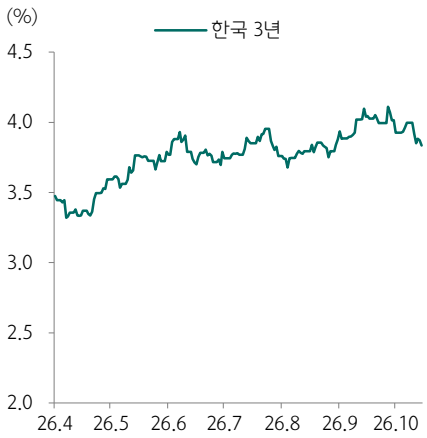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5.6
5.2
4.8
4.4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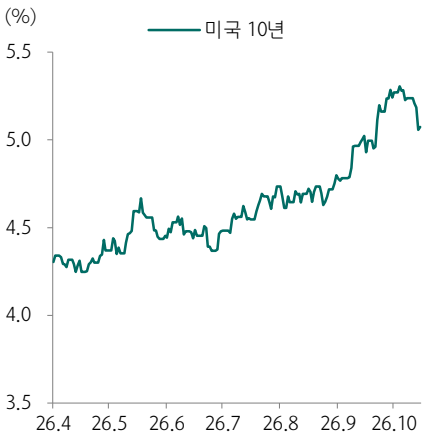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6.4
26.6
26.8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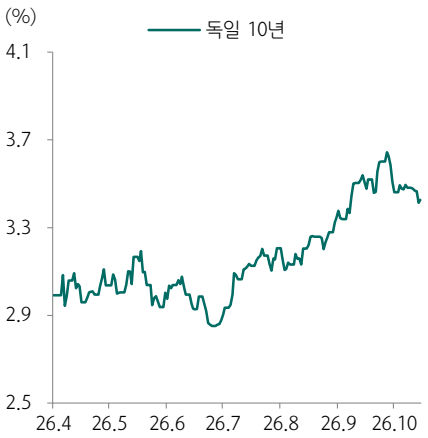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60
26.4
26.6
26.8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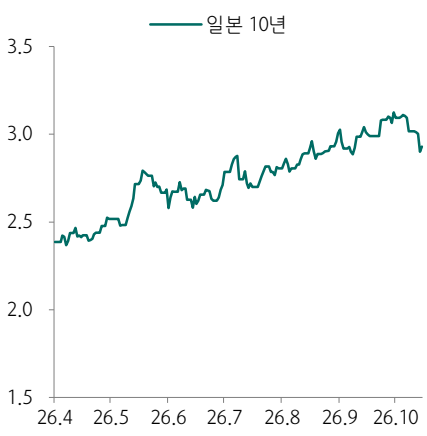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100
97
94
91
88
85
26.4
26.6
26.8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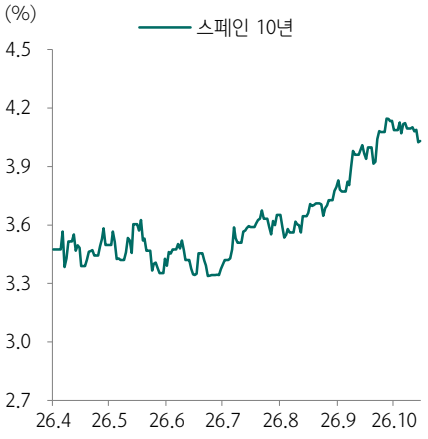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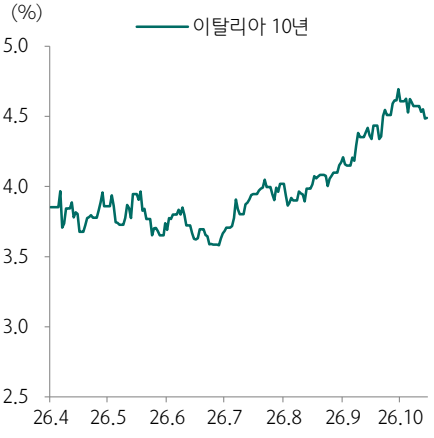

(%)
한국 3년
4.5
4.0
3.5
3.0
2.5
2.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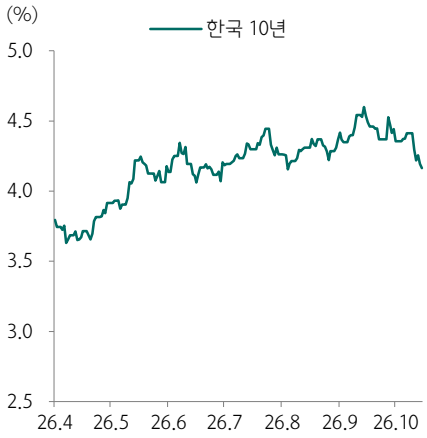

(%)
미국 10년
5.5
5.0
4.5
4.0
3.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
독일 10년
4.1
3.7
3.3
2.9
2.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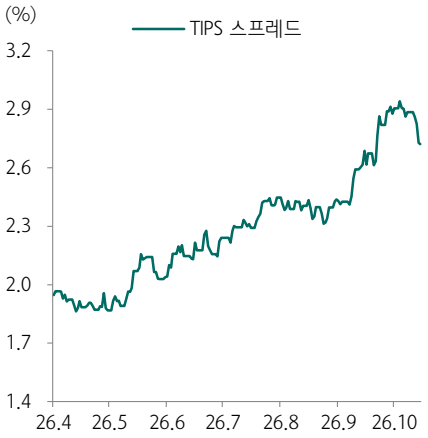

일본 10년
3.5
3.0
2.5
2.0
1.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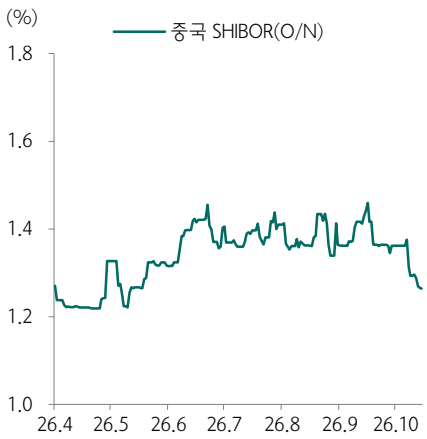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4.5
4.2
3.9
3.6
3.3
3.0
2.7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
이탈리아 10년
5.0
4.5
4.0
3.5
3.0
2.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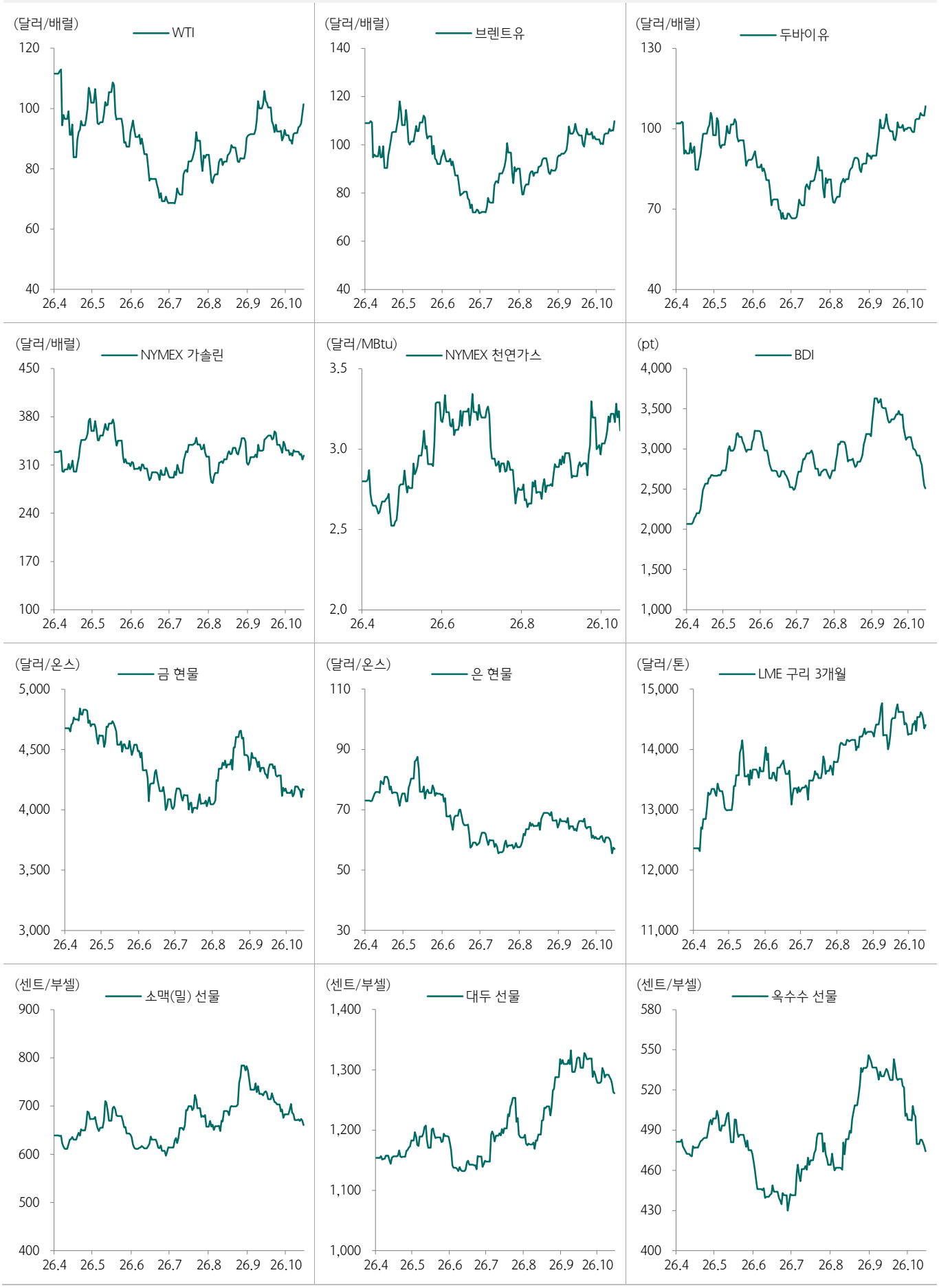

(%)
한국 10년
5.0
4.5
4.0
3.5
3.0
2.5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
미국 2년
60
40
20
0
26.4 26.6 26.8 26.10


(%)
TIPS 스프레드
3.2
2.9
2.6
2.3
2.0
1.7
1.4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450
380
310
240
170
1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3.5
3.0
2.5
2.0
26.4 26.6 26.8 26.10
(pt)
BDI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온스)
금 현물
5,000
4,500
4,000
3,500
3,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온스)
은 현물
110
90
70
50
3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900
800
700
600
500
4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센트/부셀)
대두 선물
1,400
1,300
1,200
1,100
1,0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80
550
520
490
460
430
400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0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10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